

여익구 선생을 추모하며



현웅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무더운 6월, 잔잔한 초여름 연못에 가볍게 미풍이 불더니 커다란 흥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붉은 연꽃인 선생께서는 나른한 침묵과 게으름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땅의 불교와 사회를 향해 민중불교의 꿈을 다시 한번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선생께서 홀연히 육십 육년의 사바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갑자기 붉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께서 한세월 머무신 20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 사회는 세계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차별되고 왜곡된 구조적 모순

한국불교 잠깨운 '떡정의 꿈' 잊겠습니다

이 깊어갔고, 개인적 슬픔과 고통은 뜻을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병영체제가 되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너무 처참할 정도의 민중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께서는 20대 젊은 시절에 한차례 큰 사회적 고통을 겪은 뒤 '떡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문에 의탁해 치열한 옹명정진을 했습니다. '떡정'이라는 불명은 '꿈을 찾는 나그네'라는 뜻이었고, 옹명정진한 내용은 선생이 그렸던 이상사회의 꿈과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옹명정진의 결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선생은 5년만에 다시 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외쳤습니다.

"민중불교를 실천해 이 사회를 현실에서 바로 정토사회로 만듭시다!"

'민중불교'는 선생이 찾아냈던 사회적 꿈이었고, 평생을 통해 이루려 했던

꿈이었습니다. 민중불교는 내생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생에 이루자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개인적 행복은 사회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불

'떡정' 불명 받아 옹명정진

민중불교, 금생에 이루자는 원

대동사회 정토사회 꿈 키워

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지배자나 더 강한 자 더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약한 자와 부족한 민중을 존중해 마침내 차별 없는 대동 사회를 이루려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부처의 불교가 아니라 중생의 불교, 그리고 중생의 사회적 이름인 민중의 불교입니다. 마침내 민중불교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종식하고 열반의 안락을 이루려는 이상사회의 꿈이었습니다.

떡정 여익구 선생께서는 민중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상사회의 꿈을 찾았고, 평생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선생께서 제창하신 민중불교는 1980년대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고, 움직이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 변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진 이 땅의 보디사트바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홀연히 유향의 태양아래 붉은 연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연꽃의 향기를 맡으며 선생에 펼치신 민중불교의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십시오.

社說

WFB 중국대표 우의정신 잊었나

조계종이 6월 14일 세계 불교도들의 행사인 '세계 불교도 우의회(WFB)' 한국대회에서 중국 대표단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불교 대표단은 전남 여수서 6월 12~15일 일정으로 열린 '세계 불교도 우의회' 대회에서 티베트 대표단 참가를 비난하며 대회 첫날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후 개막 행사에는 WFB다람살라 지부 페마 친초르 문화복지 이사(중앙티베트 행정부 장관)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급기야 13일엔 중국 불교 대표단 17명이 모두 철수해 중국으로 귀국했다. 일반 행사도 아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나누는 행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동안 외교관계를 고려해 침묵으로 그들의 행보만 지켜왔던 조계종과 국내 불교 단체들도 중국 대표단의 철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14일 발표문을 내고 최

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세계불교도 우의회의 정식 지부로 등록된 티베트 대표단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대표단의 행위를 개탄하며 중국 불교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여기에 앞으로 조계종은 중국 불교와 관계 재설정도 고려하겠다는 조강수의 강경한 태도를 천명했다.

'세계 불교도 우의회' 대회는 1950년 세계 불교인의 연대와 형제애를 모토로 걸고 스리랑카에서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행사다. 해마다 40여개국서 불교 지도자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명실공히 세계 불교계의 큰 행사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조장한 중국 불교계는 각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이는 분명 부처님 가르침을 역행하는 일이다. 과거 한때 중화민족이라고 까지 자처했던 대륙적 기질의 포용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인 중국 불교 자국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 나서라

1972년 6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기 위해 공작원이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선거 방해, 정치 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났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로 행한 불법사찰이 민간인들도 모자라 불교계에도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죽여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 수사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불교계는 현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조계사는 호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주간한국>에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청와대와 검찰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건 중 497건이 범죄행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발표했다. 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사찰은 아니었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한 개인의 그것도 종교인의 성향을 사찰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표출할 수도 있다. 이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조사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 임기 말, 진정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을, 종교를 '잠정적 범죄집단'으로 봤던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조계종 쇄신계획,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6월 7일 조계종총무원이 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1일에는 쇄신계획의 입법을 다루는 중회도 열린다. 어느 때보다 세간과 출세간의 관심이 조계종의 쇄신에 모이고 있다. 불교계도 잇달아 성명서와 결의문을 내고 기대를 표하고 있다. 교구 분사,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종법 제개정에 신중 기하자

현조 스님 제5교구분사 법주사 주지

종단의 쇄신계획에는 환영한다. 쇄신계획이 한국 불교 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주사와 전국 교구분사 사부대중 역시 종단 쇄신에 함께 할 것이다.

종단도 이번에 발표한 1차 쇄신 계획이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앙총무원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과 의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쇄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 수렴도 이뤄졌으면 한다. 특히 쇄신 관련 종법 제개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렵고 공론화하기도 어려우니 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교구분사주지들도 사부대중 공동체의 가치를 가슴 깊이 간직해 쇄신 불사를 동참해 나가겠다.



감동·믿음 주는 쇄신 하라

범음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종단 지도부의 1차 쇄신계획안에 대해 종단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지지, 또는 긍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하지만 지도부와 단체 간 온도차가 너무 크다. 세간의 평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감동과 믿음을 주기엔 턱없이 모자랐다는 얘기다. 이제 총무원 집행부는 백책간만에 진일보의 자세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불교라는 그 당당하고 헌결한 진리를 올바르게 펼 수 있는 틀, 곧 종단의 근본철학과 유기적 짜임새를 온전하게 정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교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종교다. 종단의 쇄신도 이 '신해행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표한 제1차 쇄신안이 성공할 수 없으며, 대중의 호응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의 쇄신을 하라.



재가자, 한국불교 위한 답 찾자

성태웅 교수 우리는 선우 이사장

1차 쇄신안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여론수렴과 내부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선언적이고 그 실천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쇄신 추진에 대한 기한 명시도 없고 그 주체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이 없는 쇄신안은 미봉책이고 기만이다.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간다면 유사한 행위가 터질 때마다 대중들은 불교에 등을 돌릴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를 근거로 훼손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재가자들 역시 진정으로 승가를 위한, 한국불교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품고가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승상은 답이 되지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상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용 연불상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신중탱화